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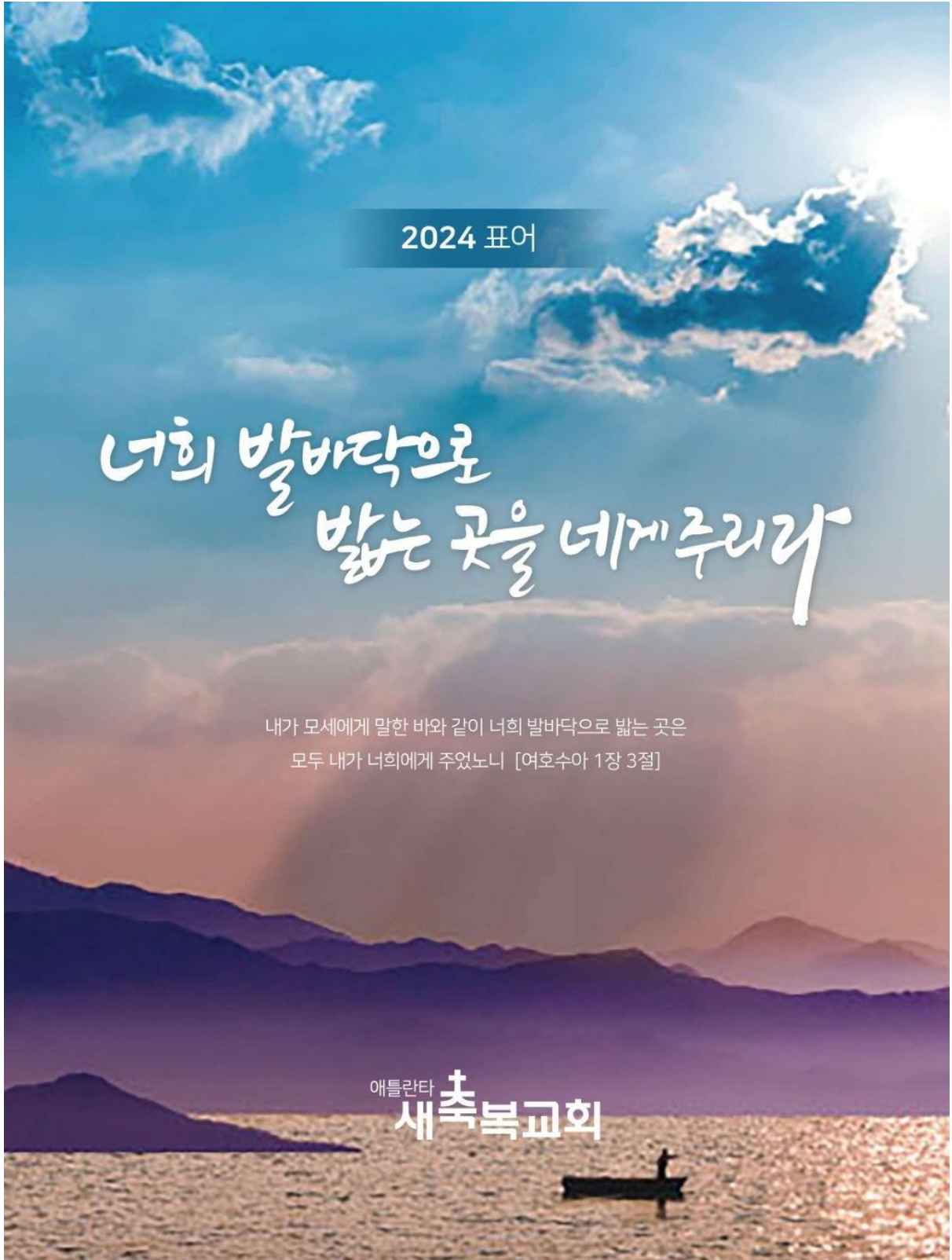
2024 년 12 월 15 일의 소식

2024 표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나에게 주리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호수아 1장 3절]

애틀란타
새**초**복교회



2024년 12월 15일 청년부 예배

예배순서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경배와 찬양	예수님은 누구신가 내 맘의 눈을 여소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주의 나라가 임할 때	Behold
기도		김하진 자매
성경봉독	마가복음 8장 27절 - 9장 1절	드라마 바이블
말씀선포	Who is Jesus	우정석 목사
헌금찬송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다같이
결단기도		다같이
봉헌기도		우정석 목사
축도		우정석 목사
교회소식		운영단

공동체 소식

1. 할렐루야! 새축복교회 뉴블청년부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교회 / 사역 소식
 - 오늘 친교 | 정구상 집사님, 김창숙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해주셨습니다.
 - BEHOLD CLASSIC 연주 | 12월 14일 어제 오후 5시에 새축복교회에서 비홀드 클래식 의 성가 및 캐롤 연주가 있었습니다.
 - 성탄주일예배 | 12월 22일 주일은 성탄을 맞이하여 다함께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 성탄감사예배 | 12월 25일 성탄절 당일 아침 9시에 성탄예배를 드립니다.
 - 성탄 선물 나눔: 예배 후에는 서로 성탄 선물을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각자 20불 정도의 선물을 준비하여 가져와 주시면 모두가 함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 식사 친교: 예배 및 행사 후 함께 식사하는 친교시간이 있습니다.
 - 특송: 25일 성탄절 예배에서 특송으로 섬겨주실 분들의 자원을 받습니다.
 - 청년부 총회 | 12월 8일 지난주 주일에 청년부 총회가 있었습니다.
2024년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한 해를 섬겨준 운영단을 위해 기도하며 2025년 운영단을 새롭게 선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강성경 자매, 원종빈 형제, 김하진 자매
 - 오늘 예배 후에 아웃팅이 있습니다.
 - Fire inspection 을 통과 했습니다.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배 위원

DAY	대표기도	뒷정리
12/15	김하진	셀 아웃팅
12/22	연합예배	연합예배
12/29	정성원	IE종아셀
01/05	TBD	TBD

새축복교회의 핵심 가치

말씀 공동체	말씀을 배우고 전하고 가르치는 공동체 (엡 4:11)
치유 공동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공동체 (엡 4:12)
양육 공동체	영적 성숙으로 장성하는 공동체 (엡 4:13, 15)
훈련 공동체	제자로 세우는 공동체 (엡 4:11)
선교 공동체	복음으로 땅끝을 품는 공동체 (엡 4:11)
셀 교회 공동체	모든 지체가 함께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몸 (엡 4:16)
중보 공동체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를 목격하는 공동체 (엡 6:18)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장년예배	오전 10시 40분
주일 청년예배	오후 1시 30분
금요일예배	오후 7시
새벽예배	화-금 오전 6시, 토요일 오전 7시

헌금 안내

Venmo
@newblessingchurch

Zelle ID
newblessingchurch.atlanta@gmail.com

양육과 훈련 안내

새가족 교육 (3주)
세례자 교육 (5주)
결혼 학교 (4주)
통독 훈련 (매년 1번)
셀 성경공부 (매주 예배 후)
밀알선교회 (매주 셋째주 토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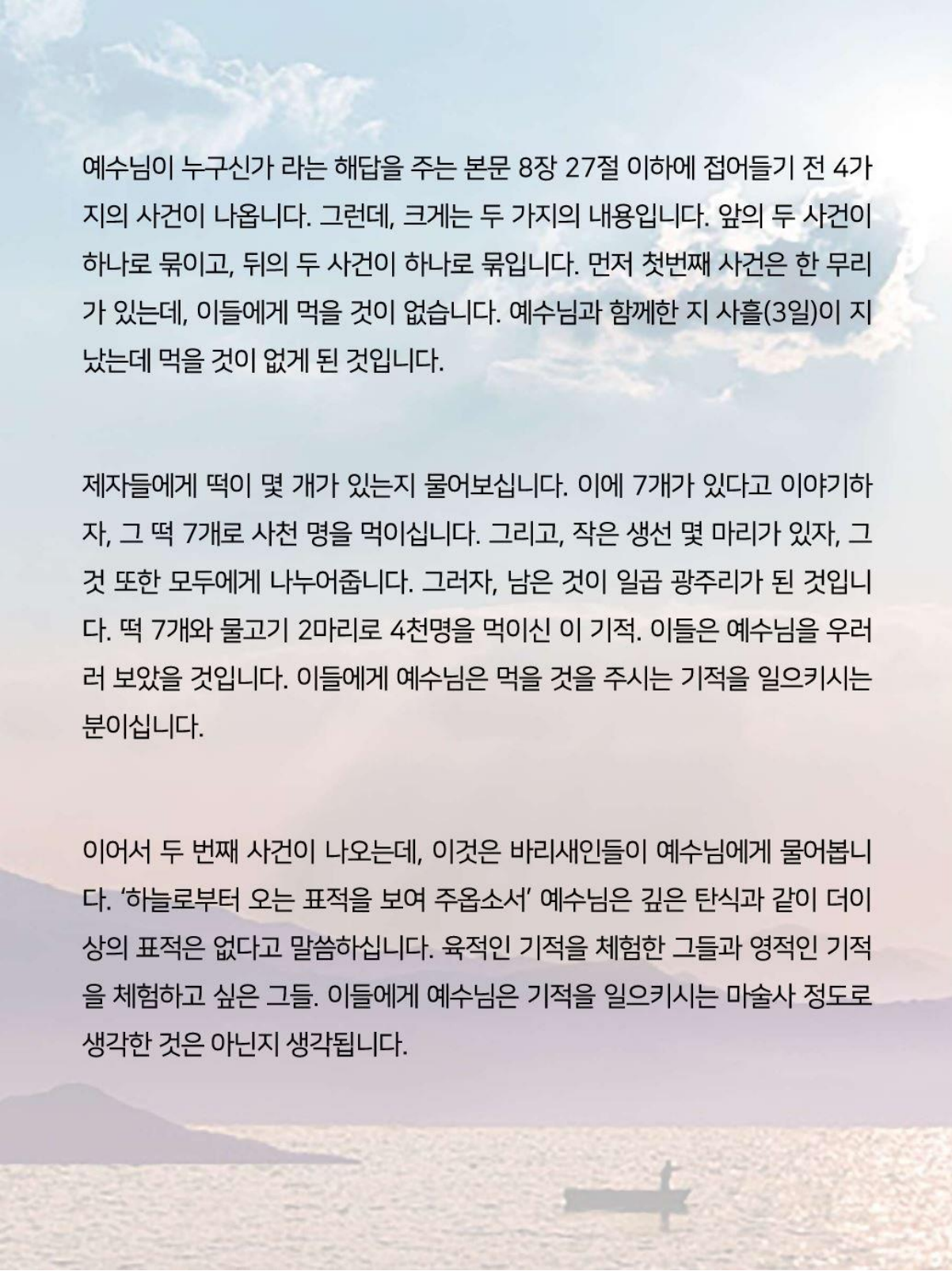
[이 질문지 안에 있는 질문들은 “대화과 목상을 돕는 질문” 들입니다. 시험문제와 같이 기계적으로 모두 다루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질문을 보다가 나누고 싶은 목상이 생긴다면, 주어진 질문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없는 질문을 여러분이 셀원들에게 던지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으로 마주치고, 그 마주침을 셀원들과 공유하는 것이 셀 모임의 목적이기에, 그 목적 안에서 자유롭게 깊이 있는 나눔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20241215 주일청년 설교요약 | 마가복음 8장 27절 - 9장 1절

Who is Jesus?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라는 인물은 대체 어떠한 사람인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정말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 자체이신가? 십자가에 죽을만큼 정말로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인가? 그가 분명히 죽었는데, 정말로 부활이 가능하였던가?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정말로 메시아(그리스도)가 맞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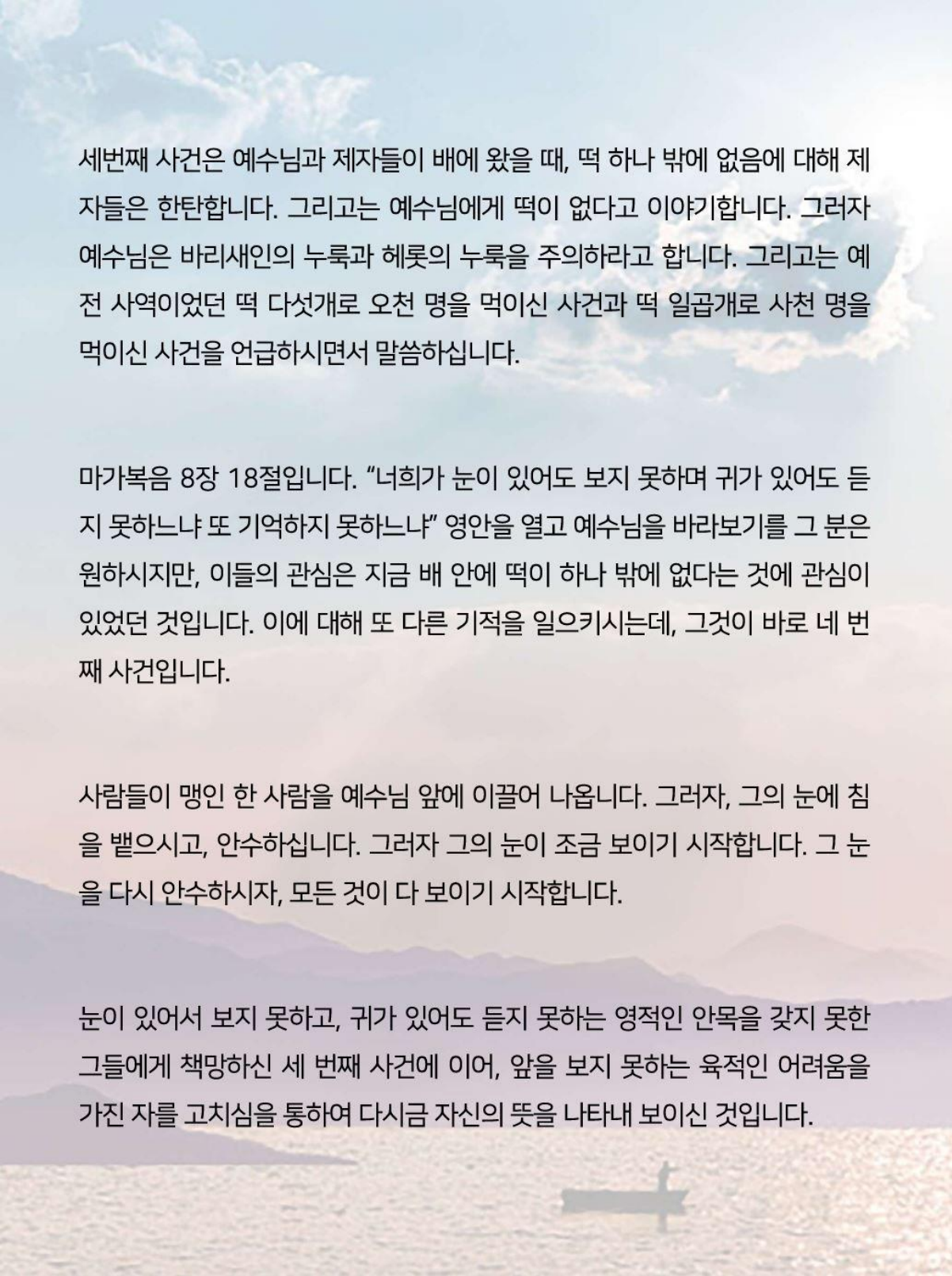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실 때,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신 부분으로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주 성탄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분이 누구이신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애를 통한 3가지 사역이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관통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그 질문에 답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해답을 주는 본문 8장 27절 이하에 접어들기 전 4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크게는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앞의 두 사건이 하나로 묶이고, 뒤의 두 사건이 하나로 묶입니다. 먼저 첫번째 사건은 한 무리가 있는데, 이들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지 사흘(3일)이 지났는데 먹을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이에 7개가 있다고 이야기하자, 그 떡 7개로 사천 명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작은 생선 몇 마리가 있자, 그것 또한 모두에게 나누어줍니다. 그러자, 남은 것이 일곱 광주리가 된 것입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천명을 먹이신 이 기적. 이들은 예수님을 우러러 보았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먹을 것을 주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깊은 탄식과 같이 더 이상의 표적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적인 기적을 체험한 그들과 영적인 기적을 체험하고 싶은 그들. 이들에게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마술사 정도로 생각한 것은 아닌지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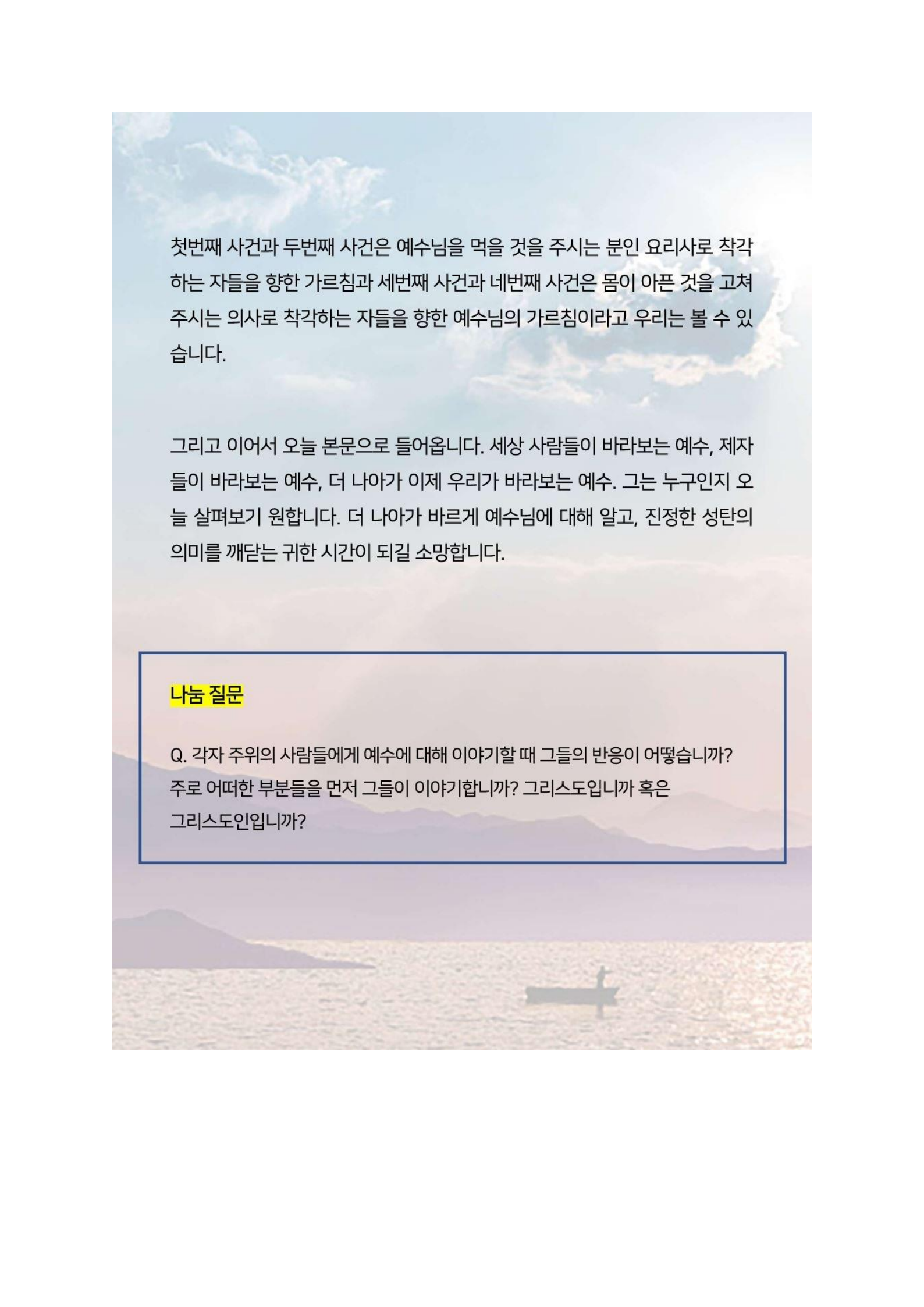


세번째 사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왔을 때, 떡 하나 밖에 없음에 대해 제자들은 한탄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떡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예전 사역이었던 떡 다섯개로 오천 명을 먹이신 사건과 떡 일곱개로 사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입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영안을 열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그 분은 원하시지만, 이들의 관심은 지금 배 안에 떡이 하나 밖에 없다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것이 바로 네 번째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예수님 앞에 이끌어 나옵니다. 그러자,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십니다. 그러자 그의 눈이 조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눈을 다시 안수하시자, 모든 것이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이 있어서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안목을 갖지 못한 그들에게 책망하신 세 번째 사건에 이어, 앞을 보지 못하는 육적인 어려움을 가진 자를 고치심을 통하여 다시금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첫번째 사건과 두번째 사건은 예수님을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인 요리사로 착각하는 자들을 향한 가르침과 세번째 사건과 네번째 사건은 몸이 아픈 것을 고쳐 주시는 의사로 착각하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 제자들이 바라보는 예수, 더 나아가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는 누구인지 오늘 살펴보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 바르게 예수님에 대해 알고,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눔 질문

Q. 각자 주위의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주로 어떠한 부분들을 먼저 그들이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입니까 혹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첫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8:27-28)

본문 8장 27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 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앞의 네 사건이 있는 후, 제자들에게 다시금 물어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나는 누구로 불리우고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이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본문 8장 28절입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평가할 때 과거에 나타났던 세례 요한이 다시 나타났다고 이야기 합니다. 또한 누구는 구약의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고, 또한 누군가는 다른 선지자 중 하나라고 이야기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들의 마음 안쪽에는 예수는 단지 사람이고, 기적들이 일어난 것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힘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정해두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던 예수님의 질문에 이들은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모르시고 이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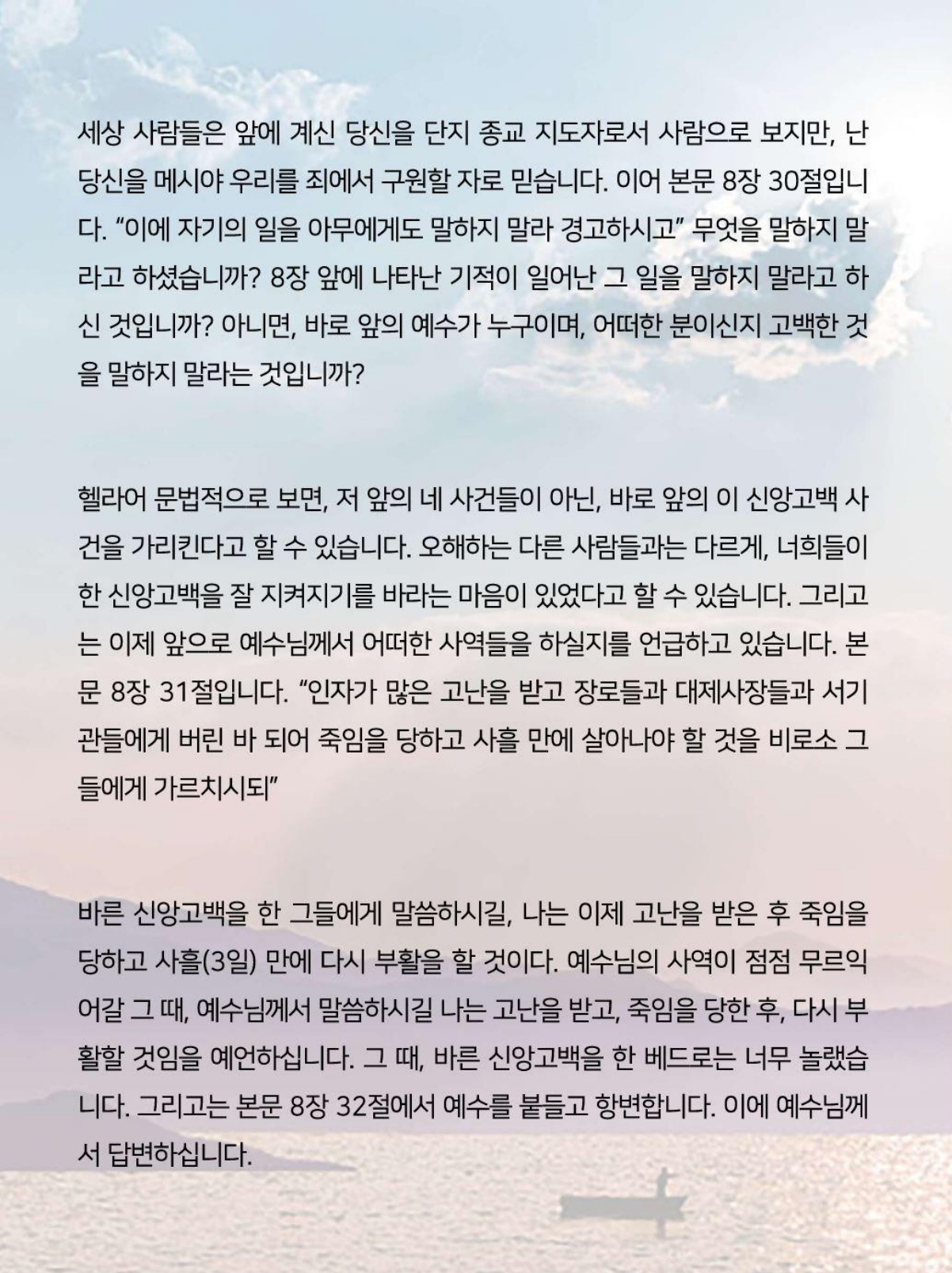
그러나, 예수님은 이전 네 가지의 사건을 통하여 이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신 이유는 바로, 너희들도 나에 대해 그들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다면,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경고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나눔 질문

Q. 예수님에 대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 가운데,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둘째, 너희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8:29-33)

본문 8장 29절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다른 말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앞에 계신 당신을 단지 종교 지도자로서 사람으로 보지만, 난 당신을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믿습니다. 이어 본문 8장 30절입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무엇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8장 앞에 나타난 기적이 일어난 그 일을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바로 앞의 예수가 누구이며, 어떠한 분이신지 고백한 것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헬라이어 문법적으로 보면, 저 앞의 네 사건들이 아닌, 바로 앞의 이 신앙고백 사건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너희들이 한 신앙고백을 잘 지켜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들을 하실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 8장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바른 신앙고백을 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나는 이제 고난을 받은 후 죽임을 당하고 사흘(3일) 만에 다시 부활을 할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무르익어갈 그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 다시 부활할 것임을 예언하십니다. 그 때, 바른 신앙고백을 한 베드로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본문 8장 32절에서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본문 8장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바른 신앙고백을 하여 칭찬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이 있는 후에 이들은 충격을 받았는지 그 일을 막으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른 신앙고백을 한 베드로가, 후에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 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물러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아 물러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사탄이 주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에 따른 행동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바르게 그 분이 누구인지도 알았지만, 순간적인 상황에 따라 이들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 부정하는 일도 벌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눔 질문

Q. 제자들이 고백한 그 신앙고백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칭찬 받은 것과 책망 받은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칭찬받는 신앙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책망받을 신앙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셋째,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8:34-37)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십니다. 8장 34-35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도 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목숨이 소중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8장 36-37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믿는 것을 죽음의 순간까지도 전하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강조하셨습니다.

한 무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어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 하십니다. 앞에서 베드로의 바른 신앙고백을 칭찬 하신 후, 베드로가 책망받은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눔 질문

Q. 그렇다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란?

